

대물 다툼 상황에서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 분석*

Processes in Peer conflicts of Two-Year-Olds:
Disputes over Objects

이 강 이**

Lee, Kang Yi

이 순 형***

Yi, Soon Hy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interactions of two-year-old toddlers in peer conflicts caused by disputes over objects. Thirty pairs of same-gender peers were recruited from 10 child care centers. The age of these toddlers ranged from 24 to 36 months. The data were collected by experimental observation. The interaction processes between the pairs of subjects were recorded by video camera. 24 pairs displayed peer conflict over objects. The data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employing content analysis and the SPSSW in 6.0.

Major findings showed that when the toddler was in conflict with a peer for toys, (1) he or she interacted actively with the other child, employing both non-verbal and verbal strategies to resolve the conflict; (2) behaviors and statements reflected an egocentric tendency; (3) they recognized ownership of toys; and (4) he or she employed some prosocial strategies which could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social skills in a conflict situations with peers.

I. 서론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물건의 소유 및 이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물 다툼은 취학 전 아동이 보이는 또래 갈등의 주요 사안으로 등장한다(Caplan, Vespo, Pederson, & Hay, 1991; Laursen & Hartup, 1989; Shantz, 1987).

그러나 대물 다툼으로 인한 또래 갈등이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생후 18개월 이전의 영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또래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Eron, Huesmann, Brice, Fischer,

* 본 논문은 1998년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 Mermelstein, 1983: Hay, Nash, & Pederso, 1983). 생후 18~24개월 무렵에 사물에 대한 대상영속성 개념을 획득하고 외현적인 물리적 자아에 대한 인지가 발달하면서, 걸음마기의 영아는 장난감을 놓고 또래와 자주 대물 다툼을 보이기 시작한다.

또래 갈등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의 연구자들은 또래 갈등의 발생을 실패한 사회화의 신호로 인식하고 또래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갈등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파괴적인 잠재성과 함께 건설적인 잠재성도 가진다(Laursen, Hartup, & Koplas, 1996)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히 갈등의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또래 갈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촉진시키고(Dunn & Slomkowski, 1992), 담화기술을 향상시키고(Garvey, 1984),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는다(Katz, Kramer, & Gottman, 1992).

또래 갈등의 경험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아동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또래 갈등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2세아는 발달단계상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이기 시작한다(장영희, 1987: Eckerman, Whatley & Katz, 1975: Holmberg, 1980: Mueller & Lucas, 1975)는 점에서 초기 또래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또래와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2세아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초기 또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2세아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또래간의 대물 갈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물 다툼 상황에서 2세아가 보이는 또래 갈등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보이는 또래 갈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또래 갈등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로는 2세아의 또래 갈등 특성을 규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또래 갈등이 유발되어 끝나기까지의 전 과정 중 일부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또래 갈등의 전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래 갈등 사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크게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진입 단계와 갈등에 관여된 당사자간에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는 전략 사용 단계 및 갈등이 해결되는 종결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과정(Ross & Conant, 1992)¹⁾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Caplan et al., 1991: Dunn & Slomkowski, 1992: Hartup, Laursen, Stewart, & Eastenson, 1988: Killen & Turiel, 1991)는 또래 갈등 과정 중 전략 사용 단계의 실태만 살펴보거나 또래 갈등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 또래 갈등의 결과를 살펴보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유아 및 학동기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을 구체적

1) Hay(1984), Laursen과 Hartup(1989) 등은 갈등관계에서 나타나는 반대의 연속체를 “A가 B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고, B는 이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두 단위의 교환관계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는 갈등을 정의하는데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않으며(Maynard, 1985), 갈등관계는 상호간에 명백한 반대를 포함하는 교환관계에서만 언급될 수 있다(Shantz, 1987). 예를 들어, A가 B의 반대에 직면해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다는 A가 양보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A가 B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고, B는 이에 반대하는데, A는 여전히 B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세 단위의 교환관계를 갈등관계로 본다.

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또래 갈등 과정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진술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관찰범주를 설정한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2세아는 언어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행동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언어적 수단을 사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한다(이순형, 김정연, 1997; 이영석, 1995; Eckerman, Davis & Didow, 1989; Eckerman & Didow, 1996). 따라서 비언어적 수단과 언어적 수단을 병용하여 의사소통하는 2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진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관찰을 실시한 선행연구의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물 다툼으로 인해 또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장난감을 뺏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과 장난감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이 사용하는 전략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구에서는 또래간의 상반된 목표를 구별하지 않고 갈등 전략을 살펴본 경향이 있다. 또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이 사용하는 전략이 사용 목표에 따라 차이를 보임(Chung & Asher, 1996)을 고려할 때, 또래와의 대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세아가 사용하는 전략은 장난감을 빼앗기 위한 탈취 전략과 장난감을 지키기 위한 유지전략으로 대별되어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 및 사용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지적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대물 다툼 상황에서 2세아가 보이는 또래 갈등 과정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물 다툼 상황에서 2세아가 보이는 또래 갈등 과정의 단계별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물 다툼으로 인한 또래 갈등 과정에서 2세아가 사용하는 전략은 하위범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관찰대상의 선정

이 연구에서는 서울, 수원, 안양 및 평촌에 위치한 10곳의 종일제 어린이집에서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2세아 60명을 관찰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관찰단위는 어린이집의 같은 반에 속하면서 생일이 6개월 이상 차이나지 않는 동성의 또래를 2명씩 짝지어 남아쌍과 여아쌍을 각 15쌍씩 구성하였다.

2. 관찰상황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2명의 2세아가 장난감을 놓고 또래 갈등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후, 이들이 보이는 행

동과 진술을 관찰하는 실험실 관찰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또래간의 대물 다툼은 개방된 공간보다 폐쇄된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며(Wheeler, 1994), 폐쇄된 공간에서 놀 경우 놀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갈등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아동의 노력이 요구된다(Killen & Turiel, 1991). 이에 따라 폐쇄된 실험실 상황에서 관찰을 실시하는 것이 또래 갈등 과정의 전 단계를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영·유아의 또래 갈등 사안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Caplan et al., 1991; Hay & Ross, 1982; Laursen & Hartup, 1989)에 따르면, 만 2세 이상의 걸음마기 영아가 일정한 장소에서 또래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는 제공된 자원과 관련해서 대물 갈등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제한된 양의 자원이 제공될 때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라, 2명의 2세아를 제한된 장소에서 놀게 하면서 동시에 제한된 숫자의 장난감만 제공할 경우 또래간에 대물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위와 같은 관찰 상황의 구성이 과연 또래간 대물 다툼을 유발하는데 적합한지 알아보고, 2세아에게 적합한 장난감의 종류²⁾와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남아쌍, 여아쌍 각 2쌍씩을 대상으로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관찰 결과, 연구자가 구성한 관찰 상황이 또래간의 대물 다툼을 유도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관찰을 위해 어린이집에 별도로 마련한 관찰실에 골판지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각 2m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트럭과 인형을 각각 1개씩 배치하였다.

3. 관찰 도구의 구성

예비관찰 결과 대물 다툼 상황에서 2세아가 상대방에게 물리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주로 공격성의 유무에 따라 영유아의 행동 또는 진술을 구분한 선행연구(이순형, 김정연, 1997: Caplan et al., 1991: Chung & Asher, 1996: Hartup et al., 1988)의 관찰범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대물 다툼 상황에서 영아와 상대영아³⁾가 처한 상이한 목표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관찰범주를 적용해왔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예비관찰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또래 갈등 과정의 관찰범주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진입 단계의 관찰범주는

‘소극적 행동’, ‘적극적 행동’ 및 ‘명령/요구’로 나누었으며, 종결 단계의 관찰 범주는 ‘독점’, ‘역전’, ‘타협’ 및 ‘3자개입’으로 나누었다. 전략 사용 단계의 관찰범주는 먼저 비언어적 전략과 언어적 전략으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영아와 상대영아의 상반된 전략 사용 목표에 따라 유지 전략과 탈취 전략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비언어적 유지(또는 탈취) 전략은 ‘소극적 방어(또는 탈취)’, ‘적극적 방어(또는 탈취)’, ‘공격적 방어(또는 탈취)’, ‘대안제시/협상’ 및 ‘도움추구’로 나누었으며, 언어적 유지(또는 탈취) 전략은 ‘명령/주장’, ‘거부/위협(또는 항의/위협)’, ‘이유제시(또는 이유제시/질문)’, ‘협상’ 및 ‘도움추구’로 나누었다. 구성된 관찰도구의 타당도는 아동학 전문가 4인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4. 본관찰 및 부호화 절차

1) 본관찰 실시

본관찰은 1997년 10월 중순부터 11월말에 걸쳐 실시하였다. 어린이집의 오전 중 자유활동시간을 이용해서 2명의 아이를 별도의 관찰실에 데려와 실시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유희실에서 놀고 있는 동안 교실에서 관찰을 실시하였다. 2명의 관찰대상이 울타리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하였으며, 관찰시간은 20분을 기본으로 하였다.

2) 또래 갈등 과정의 선정 및 전사작업

녹화된 내용 중에서 분석의 단위가 되는 또래 갈등 과정을 선정하였다. 갈등 과정의 선정 기준은 첫째, 상대영아가 영아의 장난감에 접근을 시

2) 장난감 선정에는 이숙재(1997), 이영석(1995), Caplan과 동료들(1991) 및 Hay와 Ross(1982)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3) 이 연구에서는 장난감을 먼저 가지고 놀다가 또래가 접근을 시도하면 이에 반대를 표시하는 쪽을 ‘영아’로 지칭하고, 또래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에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쪽을 ‘상대영아’로 지칭한다.

도하는 것에 대해 영아가 반대를 표시하자 상대 영아도 상호반대를 표시한 경우, 또래 갈등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갈등원이 되는 장난감을 둘러싸고 영아 또는 상대영아가 보이는 행동이나 진술에 대해 상대방이 더 이상 반대를 보이지 않는 상태가 30초 이상 지속될 경우, 또래 갈등 과정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였다⁴⁾. 셋째, 일단 또래 갈등 과정이 종결되었다라도 바로 직전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장난감을 놓고 또 다시 영아의 반대와 상대영아의 상호반대가 발생한다면, 이는 이전의 갈등 과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또래 갈등 과정을 선정한 결과, 6쌍을 제외한 24쌍이 또래 갈등 과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24개 또래 갈등 과정의 녹화 테이프를 보고 장난감을 둘러싸고 발생한 행동과 진술의 내용을 영아와 상대영아로 나누어 전략 사용 단계에 전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략 사용 단계는 상대영아의 접근에 대해 영아의 초기 반대와 상대영아의 상호반대가 나타나고 이후 2명의 또래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반대 전략을 사용하는 단계를 말한다. 따라서 전략 사용 단계는 영아의 유지 전략으로부터 시작한다. 진입단계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영아에게 상대영아가 접근함으로써 또래 갈등이 유발되는 단계를 말하므로, 영아의 초기 반대에 선행된 상대영아의 행동 및 진술의 내용을 진입 단계에 구체적으로 전사하였다. 끝으로 영아 또는 상대영아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반대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서 갈등이 해결되는 종결 단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사하였다.

3) 부호화 절차

전사한 내용은 사례별로 관찰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였다. 먼저 진입 및 종결 단계의 범주를 분류한 후, 전략 사용 단계에서 영아와 상대영아가 보인 행동과 진술을 각각 관찰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사건표집법에 따라 하위범주별로 사용 빈도를 산출하였다.

부호화 절차의 신뢰도는 평정자간 일치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아동학 전공자 2명에게 전체 관찰 사례를 전사한 내용을 주고 관찰범주에 대해 설명한 후, 2명이 각각 분류한 내용을 놓고 평정자간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1,078개의 전략 중 945개(87.7%)의 분류가 서로 일치하였고 나머지 133개(12.3%)의 분류에서만 불일치를 보여, 평정자간 신뢰도는 .88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 2명의 평정자간에 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행동이나 진술에 대해서는 녹화된 자료를 근거로 합의과정을 거쳤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관찰 사례의 인용을 통한 질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의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SPSSWin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고 비모수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Caplan과 동료들(1991) 및 Hay와 Ross(1982)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2세아가 보이는 또래 갈등 과정의 단계별 양상

1) 진입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대영아의 접근 양상

관찰 결과, '소극적 행동'의 범주에 속한 상대영아가 8명(33.3%), '적극적 행동'과 '명령/요구'의 범주에 속한 상대영아가 각각 7명(29.2%)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명(6.3%)의 상대영아는 기타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또래 갈등을 유발시키는 2세아의

접근 양상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관찰 사례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영아가 영아의 옆으로 다가가거나 마주앉아서 쳐다보는 행동이 영아에게는 자신의 장난감을 뺏으려는 시도로 인식되어 또래 갈등을 유발한다.

<표 1> 비언어적 유지 전략의 관찰 사례

하위 범주	관찰 사례
소극적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영아의 행동을 살피며 트럭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다. *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상대영아의 시선을 의식하고 뒤돌아본다. * 상대영아가 트럭을 못 잡도록 뒤로 숨겨놓는다. * 인형을 들고 도망간다. * 인형을 안고 뒤돌아 앉는다.
적극적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윳병을 잡은 상대영아의 손을 뿌리친다. * 인형 다리를 꽉 붙잡고 잡아당긴다. * 바닥에 내려놓은 인형을 상대영아가 잡으려고 하자 재빨리 집어든다. *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우유를 먹인다.
공격적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영아를 때리거나 밀어버린다. * 상대영아를 향해 들고 있는 트럭을 휘두른다. * 상대영아를 발로 찬다.
대안제시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을 안고 가만히 앉아서 상대영아가 인형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본다. * 인형에게 먹이던 우윳병을 상대영아에게 내준다. * 인형을 꼭 안은 채로 상대영아가 인형 입에 우윳병을 한번 꽂아보도록 허락한다. *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며 고갯짓으로 트럭을 가리킨다. * 바닥에 놓여있는 트럭을 상대영아 쪽으로 밀어준다.
도움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영아와 장난감을 마주 잡아당기며 관찰자를 쳐다보고 운다. * 상대영아가 잡아당긴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관찰자를 쳐다본다.

〈사례 8〉⁵⁾

B: 트럭을 만지다가 트럭을 든 채 A옆에 가서 앉았다.

(또래 갈등 과정으로의 진입: 소극적 행동)

A: B가 옆에 앉자 인형에게 우유 먹이는 것을 중지하고 인형을 품에 안은 채 B를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있다 (소극적 방어).

상대영아가 옆에 다가가거나 장난감에 시선을 주는 것만으로도 또래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은, 갈등 도중에 보이는 아동의 행동이 자신의 일반적인 사회적 지식과 또래에 대해 알고 있는 특정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같다(Hay & Ross, 1982)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의 이용을 둘러싸고 자주 또래 갈등을 경험함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영아가 장난감에서 잠시 손을 떼고 다른 곳을 둘러보는 사이에 상대영아가 장난감을 먼저보는 행동도 또래 갈등을 유발한다.

〈사례 15〉

B: A가 트럭을 놔두고 일어난 사이에 트럭을 앞으로 굴러봄.

(또래 갈등 과정으로의 진입: 소극적 행동)

A: 재빨리 트럭 쪽으로 돌아오면서(적극적 방어), “그거 아현이 건네(명령/주장).”

이는 장난감의 소유 내지 사용과 관련된 2세아의 또래 갈등이 단순히 장난감에 대한 도구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본질도 내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Caplan et al., 1991; Hay & Ross, 1982). 예컨대 아이들은 바로 옆

에 똑같은 장난감이 있어도 굳이 한 장난감을 놓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다른 아이가 장난감을 만질 경우 장난감의 매력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절반 이상의 또래 갈등 과정이 상대영아가 ‘적극적 행동’이나 ‘명령/요구’의 진술을 통해 장난감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유발되었다. ‘적극적 행동’의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인 실례로는 상대영아가 영아의 장난감을 향해 손을 내밀며 다가오거나 장난감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행동을 들 수 있다. ‘명령/요구’의 범주에 속하는 상대영아의 진술은 “나 줘,” “줘 봐,” “내 꺼, 줘~” 등 주로 자신의 욕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 영아의 장난감에 대한 탈취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고 접근하는 상대영아의 행동도 또래 갈등을 유발시킨다. ‘기타’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 17>을 보면, 상대영아의 접근 양상이 비교적 유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이를 장난감에 대한 탈취 위협으로 해석하여 즉각 명백한 반대를 표시한 결과, 또래 갈등이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7〉

B: A가 우윳병으로 인형에게 주사 맞는 모습을 지켜 보다가 우윳병을 바닥에

내려놓은 사이에 집어들어 인형에게 대려고 하면서, “바지 벗어봐.”

(또래 갈등 과정으로의 진입)

A: B의 손에 있는 우윳병을 강제로 낚아챈다(적극적 방어).

B: A의 손위로 같이 우윳병을 잡는다(적극적 탈취).

5) 앞으로의 사례 인용에서 A는 영아를, B는 상대영아를 지칭한다.

2) 2세아가 사용하는 비언어적 전략과 언어적 전략

영아가 사용한 총 538개의 전략 중 비언어적 전략이 390개(72.5%), 언어적 전략이 148개(27.5%)를 차지했으며, 상대영아가 사용한 총 530개의 전략 중 비언어적 전략이 416개(78.5%), 언어적 전략이 114개(21.5%)를 차지했다. 24명의 영아 중 3명(12.5%)과 24명의 상대영아 중 7명(29.2%)이 전략 사용 단계에서 언어적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 24쌍 중 14쌍(58.3%)만이 2명 모두 언어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2세아는 또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언어적 수단보다 비언어적 수단을 훨씬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2-1) 비언어적 전략의 사용 양상

영아가 사용한 비언어적 전략의 전형적인 관찰 사례는 <표 1>과 같다.

영아가 사용한 비언어적 전략의 사용 분포를 <표 2>에서 살펴보면, 2세아는 또래로부터 장난감을 지키기 위해 주로 '소극적 방어' 및 '적극적 방어' 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은 24명의 영아 중 5명(20.8%)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서, 또래와 대물 다툼을 보일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2세아의 보편적 특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상대영아가 사용한 비언어적 전략의 전형적인 관찰 사례는 <표 3>과 같다.

상대영아가 사용한 비언어적 전략의 하위범주별 사용 분포(<표 4>)를 살펴보면, '소극적 탈취' 전략의 사용 빈도가 나머지 전략의 사용 빈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장난감을 빼앗는 입장에 있는 상대영아는 또래의 장난감을 주시하거나 서서히 접근하는 '소극적 탈취' 행동을 많이 보인 반면, 장난감을 빼앗기 위해 영아를 직접 공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유도하는 행동, 또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공격적 방어' 전략을 사용한 5명의 영아와 짝을 이룬 상대영아만이 영아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공격적 탈취'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언어적 전략의 사용 양상

영아가 사용한 언어적 전략의 전형적인 관찰 사례는 <표 5>와 같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영아는 장난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상대영아에게 장난감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는 진술(36.5%)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상대영아가 장난감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위협하는 진술(29.1%)을 많이 보였다. 이를 볼 때, 또래와의 대물 다툼 상황에서 장난감을 먼저 잡은 영아는 주로 장난감을 줄 수 없다는 자신의 의사를 또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진술을 언어적 전략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아는 상대영아에게 장난감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제시(22.9%)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진술(9.5%)도 보였다. 이는 2세아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유화적으로 전달하는 상위의 의사소통 기술도 사용함을 보여 준다.

24명의 영아가 사용한 5가지 언어적 전략의 범위를 살펴보면 하위범주별로 언어적 전략 사용

6) 이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사용한 24개의 또래 갈등 과정은 갈등 지속시간이 최저 11초부터 최고 1,065초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이 연구의 관찰이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동안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더러, 갈등원으로 작용한 장난감에 대해 개별 영아마다 느끼는 매력의 정도가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또래 갈등을 보인 영아와 상대영아 각각 24명이 사용한 개별 전략별 총 평균 횟수가 표준편차 및 범위의 분포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 비언어적 유지 전략의 하위범주별 사용 분포

하위범주	빈도 (%)	평균	표준편차 ⁶⁾	범위
소극적 방어	181 (46.4)	7.5	6.8	0 - 22
적극적 방어	136 (34.9)	5.7	6.4	0 - 26
공격적 방어	29 (7.4)	1.2	3.5	0 - 16
대안 제시 /협상	31 (7.9)	1.3	2.0	0 - 8
도움 추구	13 (3.3)	0.5	0.8	0 - 3

<표 3> 비언어적 탈취 전략의 관찰 사례

하위 범주	관찰 사례
소극적 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와 마주보고 앉아서 인형을 쳐다본다. * 트럭을 잡고 앉아있는 영아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쳐다본다. * 영아가 안고 있는 인형을 살짝 만져본다. * 뒤돌아 앉은 영아와 마주보도록 옮겨 앉는다.
적극적 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를 틈 타 재빨리 트럭을 집어 들고 도망간다. * 영아가 잡고 있는 우윳병을 같이 움켜잡고 잡아당긴다. * 영아가 안고 있는 인형을 가져오려고 달려든다.
공격적 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 영아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흉내를 낸다.
대안제시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럭을 등뒤에 숨기고 앉아있는 영아에게 우윳병을 내민다. * 영아에게 인형을 놓으라는 신호로 자리에 누워 방바닥을 두드린다.
도움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자 앞에 와서 영아가 들고 있는 트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운다. * 영아와 함께 인형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관찰자를 쳐다본다.

<표 4> 비언어적 탈취 전략의 하위범주별 사용 분포

하위범주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소극적 탈취	260 (62.5)	10.8	9.2	0 - 29
적극적 탈취	103 (24.8)	4.3	5.1	0 - 19
공격적 탈취	20 (4.8)	0.8	2.4	0 - 11
대안 제시 / 협상	16 (3.8)	0.7	1.3	0 - 6
도움 추구	17 (4.1)	0.7	1.8	0 - 8

<표 5> 언어적 유지 전략의 관찰 사례

하위범주	관찰 사례
명령/주장	* 내 꺼야, 내가 할거야, 만지지 마, 하지마, 줘, 내놔, 만지면 안돼, 그만 뒤, 내가 줄거야.
거부/위협	* 아니야, 안 돼, 싫어, 안 바꿔, 엄마한테 이를 거야.
이유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을 잡으려고 하는 상대영아의 손을 뿌리치며) 자동차 너 있잖아. * (상대영아가 다가왔자 인형을 안고 물어 앉으며) 잔다. * (상대영아가 인형을 잡으려고 하자 인형을 끌어안으며) 애기 아파, 애기 아파. * (상대영아가 트럭을 잡으려고 하자 인형을 트럭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거 실어야 돼.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을 만지려고 하는 상대영아에게 트럭을 밀어주며) 타, 타. * (우윳병을 잡는 상대영아의 손을 뿌리치며) 해주께, 언니가 해주께. * (트럭을 밀고 가며 고갯길으로 인형을 가리키며) 그거 봐.
도움 추구	* (인형을 끌어안으면서) 선생님, 자꾸 자꾸 뺏어요.

<표 6> 언어적 유지 전략의 하위범주별 사용 분포

하위 범주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범위
명령/주장	54 (36.5)	2.3	2.7	0 - 9
거부/위협	43 (29.1)	1.8	2.2	0 - 8
이유제시	34 (22.9)	1.4	2.9	0 - 13
협상	14 (9.5)	0.6	1.2	0 - 4
도움추구	3 (2.0)	0.1	0.3	0 - 1

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4명의 영아 중 3명(12.5%)은 언어적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24명의 영아 중 '이유 제시' 진술을 보인 영아는 10명(41.7%), '협상' 진술을 보인 영아는 7명(29.2%)에 불과한 반면, '명령/주장' 진술과 '거부/위협' 진술을 보인 영아는 각각 18명(75%)과 15명(62.5%)을 차지했다. 언어적 전략의 하위 범주 중 '도움 추구' 진술을 보인 영아는 3명(12.5%)에 불과했다.

상대영아가 사용한 언어적 전략의 전형적인 관찰 사례는 <표 7>과 같다.

다음으로 상대영아가 사용한 언어적 전략의 하위 범주별 사용 분포를 <표 8>에서 살펴보면, 영아와 마찬가지로 상대영아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의 욕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명령/주장' 진술(45.6%)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언어적 전략은 영아에게 도움을 제안하거나 영아의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협상' 진술(27.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아에게 질문을 하며 접근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영아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하는 진술이 19회(16.7%) 사용되었다. '협상'과 '이유제시/질문'의 범주를 합쳐볼 때,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화적 진술의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아가 상대영아의 접근에 대해 '거부/위협'의 진술

을 상당히 보였던 것에 반해 상대영아는 '항의/위협' 진술을 7회(6.1%)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상대영아도 하위범주별로 언어적 전략 사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4명의 상대영아 중 7명(29.2%)이 언어적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상대영아 중 '항의/위협'과 '도움추구' 진술을 보인 상대영아는 각각 5명(20.8%)과 4명(16.7%)에 불과했으며, '이유제시/질문' 진술을 보인 상대영아는 9명(37.5%), '협상' 진술을 보인 상대영아는 8명(33.3%)으로 나타났다. '명령/주장' 진술을 보인 상대영아가 14명(58.3%)으로 가장 많았다.

3) 또래 갈등의 종결 양상

관찰 결과, 총 24사례 중 12사례(50%)의 또래 갈등 과정이 영아가 계속 장난감을 독점하는 양상으로 종결되었다. '독점' 종결 사례의 전형적인 종결 상황으로는 영아로부터 장난감을 빼앗는 것이 여의치 않자 상대영아가 관찰자에게 교실에서 나가겠다고 요구한 경우와 <사례 6>과 같이 영아로부터 장난감을 빼앗는 것을 포기한 상대영아가 다른 장난감을 집어든 경우를 들 수 있다.

<사례 6>

A: (B가 트럭을 달라고 요구하며 잡으려고 하자)

<표 7> 언어적 탈취 전략의 관찰 사례

하위범주	관찰 사례
명령/주장	* 나두 줘, 줘, 줘봐, 이거 하꺼야, 나 하꺼야, 이거 내꺼야.
항의/위협	* 안돼, 아니야, 하지마, 이거 아니야, 엄마한테 이룰꺼야.
이유 제시 /질문	* (영아가 안고 있는 인형 앞으로 고개를 들이밀면서) 애기 아파? * (영아 앞에 놓여있는 우윳병을 가져오려고 하면서) 뚜껑 열어야 돼. * (영아가 인형에게 우유먹이는 모습을 지켜 보다가 우윳병을 넘어쳐며) 약 먹어야 돼.
협상	* (영아 품에 있는 인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내가 해 주께. * (영아 앞에 바싹 얼굴을 들이대면서) 나두 이따가 이거. * (우윳병을 든 영아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이 안고 있는 인형 입을 가리키며) 여기 넣어봐. * (트럭을 들고 영아 앞으로 와서) 이거랑 바꾸자. 이번에 바꾸자,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맞춰보자. * (트럭을 만지고 있는 영아에게 인형을 밀어주면서) 이거, 이거. * (영아와 트럭을 마주 잡아당기며) 같이 놀아. * (인형을 도로 가져오려고 하는 영아의 손을 뿌리치며) 한번만, 응?
도움 추구	* (영아가 자신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자) 애 좀 봐요 안 바꾼대, 이거랑. * (관찰자 앞으로 와 울먹이며 영아의 손에 있는 트럭을 가리키면서) 빠방, 빠방, 으응.

<표 8> 언어적 탈취 전략의 하위범주별 사용 분포

하위범주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범위
명령/주장	52 (45.6)	2.2	4.1	0 - 19
항의/위협	7 (6.1)	0.3	0.6	0 - 2
이유제시/질문	19 (16.7)	0.8	1.3	0 - 5
협상	31 (27.2)	1.3	3.1	0 - 14
도움추구	5 (4.4)	0.2	0.5	0 - 2

트럭을 밀고 도망감(소극적 방어).

부/위협)

B: A를 뒤쫓아가며 트럭을 잡으려고 하면서(적극적 탈취), “태호야, 줘 봐.”(명령/주장)

트럭을 안고 옆으로 돌아앉음(소극적 방어).

A: B의 손을 뿌리치며(적극적 방어), “아니야.”(거

B: 옆에 앉아 가만히 A를 쳐다보다가(소극적 탈취),

트럭을 포기하고 인형이 놓인 곳으로 가서 인형을 집어둠(종결: 영아의 독점).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종결 유형은 또래간의 타협으로 갈등이 종결된 경우로, 모두 5사례(20.8%)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명의 또래가 장난감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놀거나 상대영아가 장난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영아가 더 이상 개의치 않음으로써 갈등이 종결되었다. 이외에 영아가 자발적으로 상대영아에게 장난감을 넘겨줌으로써 갈등이 종결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타협’ 종결 사례에서 갈등의 종결에 도달하기 직전 2명의 또래가 보인 상호작용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5쌍 중 3쌍이 보인 상호작용이 걸음마기의 일반적인 놀이 형태인 평행놀이이기보다는 일종의 연합놀이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여아쌍이 트럭을 놓고 또래 갈등을 보인 <사례 9>에서는 2명의 여아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상대방에게 트럭을 굴려주는 식으로 또래 갈등이 종결되었다. <사례 16>과 <사례 23>에서는 2명의 또래가 각자 인형과 우윳병을 하나씩 차지하고 일종의 인형놀이를 진행하는 식으로 또래 갈등을 종결하였다.

<사례 16>

B: A에게 가만히 손만 내민 채(소극적 탈취),

“어-어, 애기 우유 줘, 애기 우유 줘.”(명령/주장)

A: 일단 자신이 한 번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고 B에게 우윳병을 내줌(대안제시/협상).

(B가 자신이 안고 있는 인형 입에 우윳병을 꽂는 모습을 지켜 보다가 다시 가져오려고 잡으면서)
“엄마가 해주께, 엄마가. 엄마가.”(협상)

B: A의 손을 뿌리치고 우윳병을 들고 도망가려고 함(적극적 탈취).

A: 재빨리 우윳병을 잡아 힘껏 잡아당김(적극적 방어).

B: 같이 잡아당기며(적극적 탈취), “아- 아- 내가-.”(명령/주장)

A: 잠시 B와 실랑이 하다가 우윳병을 B에게 내주고 인형만 가지고 놔(종결: 타협).

다음으로는, 4사례(16.7%)의 또래 갈등 과정이 영아가 상대영아에게 장난감을 빼앗기는 양상으로 종결되었다. ‘역전’ 종결 사례의 종결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사례가 <사례 7>과 같이 상대영아에게 장난감을 빼앗긴 영아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장난감을 집어둠으로써 갈등이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2사례에서는 영아가 가만히 앉은 채 상대영아가 장난감을 뺏어 가는 모습을 쳐다보며 우는 양상으로 종결되었다.

<사례 7>

B: A가 인형을 옆에 놓고 잠시 누워있는 사이에 인형 머리를 잡음(적극적 탈취).

A: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형 다리를 잡으면서(적극적 방어),

관찰자를 쳐다보며 칭얼댐(도움추구).

B: 인형 머리를 잡은 채 힘껏 잡아당김(적극적 탈취).

A: 계속 인형 다리를 잡은 채, “내 꺼, 내 꺼, 내 꺼.”(명령/주장)

(인형을 놓치자) 가만히 앉은 채 다리를 동동거리며 A를 향해 손을 내밀고

(소극적 방어), “내 꺼, 내 꺼야.”(명령/주장)

B: 손으로 A의 다리를 때림(공격적 탈취).

A: 돌아앉아 트럭을 집어들면서, “씨- 자동차, 이거 갖고 놀 꺼야.”(종결: 역전)

끝으로, 관찰자가 개입함으로써 또래 갈등이 종결된 경우는 3사례(12.5%)에 불과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 1>과 같이 두 명의 영아가 서로 장난감을 잡아당기면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고 울어서 관찰자가 개입한 경우와 상대영아가 관찰자에게 다가와 영아의 장난감을 가리키며 계속 칭얼거리서 관찰자가 개입한 사례가 있다.

<사례 1>

B: A가 밀고 다니는 트럭이 자신의 앞을 지나는 순간 재빨리 두 손으로 움켜잡음

(적극적 탈취).

A: B를 때리고(공격적 방어), 두 손으로 트럭을 힘껏 잡아당기며(적극적 방어),

“ 트럭 내 놔.”(명령/주장)

B: 두 팔로 트럭을 꼭 부둥켜안은 채 소리지름(적극적 탈취), “같이 놀아.” (협상)

그리고 나서 관찰자를 쳐다보며 울음을 터뜨림(도움추구).

A: 또 다시 B를 때리고(공격적 방어),

두 손으로 트럭을 힘껏 잡아당김(적극적 방어).

B: 여전히 두 팔로 트럭을 부둥켜안은 채 A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계속해서 울음.

이에 따라 관찰자가 갈등 상황에 개입함(종결: 3차 개입).

2. 영아와 상대영아의 전략 사용 비교

이 연구에서는 영아와 상대영아가 사용한 전략

의 총 횟수가 사례별로 큰 편차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 빈도를 사용하여 영아와 상대영아의 전략 사용 분포를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하위범주별 전략 사용 빈도를 전체 전략 사용 빈도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여 영아와 상대영아의 전략 사용이 하위범주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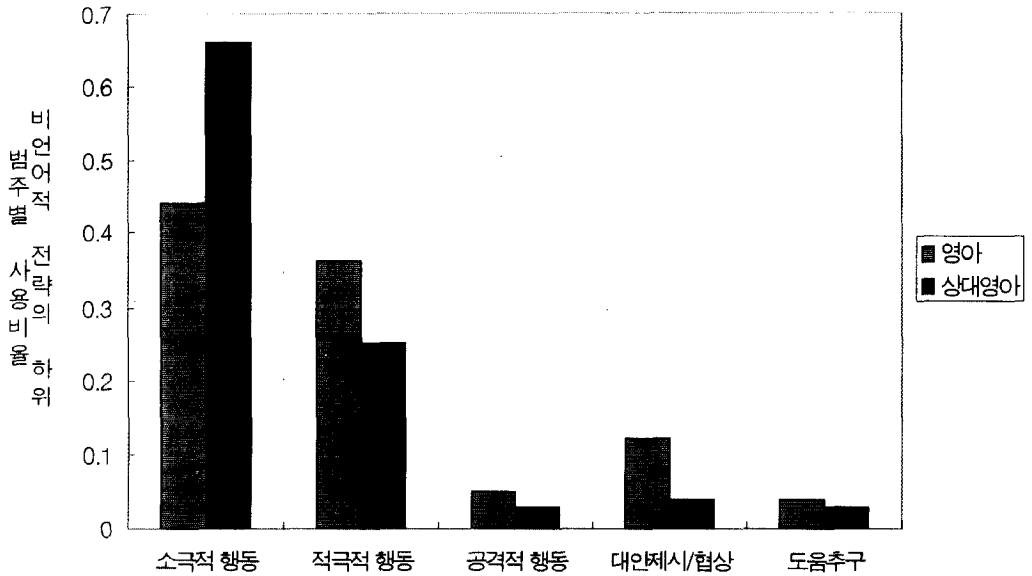
1) 영아와 상대영아의 비언어적 전략 사용 비교

또래와의 대물 갈등 상황에서 2세아가 사용하는 비언어적 전략이 자신이 처한 입장과 목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아와 상대영아가 사용한 비언어적 전략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위범주별 사용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가 <그림 1>과 같다. 영아와 상대영아가 사용한 비언어적 전략의 비율 분포가 어떠한 하위범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모수적 방법인 윌콕슨 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소극적 방어’와 ‘소극적 탈취’($Z=-2.535$, $p<.05$) 및 ‘적극적 방어’와 ‘적극적 탈취’($Z=-2.327$, $p<.05$)의 비율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에서 영아는 상대영아에 비해 ‘적극적 행동’ 전략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한 반면, 상대영아는 영아에 비해 ‘소극적 행동’ 전략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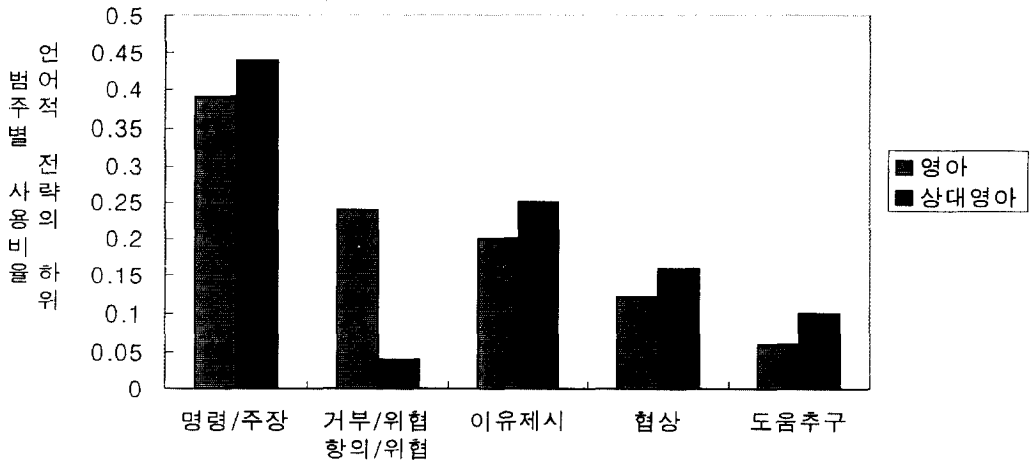
2) 영아와 상대영아의 언어적 전략 사용 비교

이 연구에서는 영아 중 21명, 상대영아 중 17명만이 관찰 상황에서 언어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영아와 상대영아가 사용한 언어적 전략의 사용 비율을 하위범주별로 비교하기 위해, 21명의 영아와 17명의 상대영아가 사용한 언어적 전략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범주별 사용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그림 2>).

영아와 상대영아가 사용한 언어적 전략의 비율



<그림 1> 영아와 상대영아의 비언어적 전략 사용 비교



<그림 2> 영아와 상대영아의 언어적 전략 사용 비율

분포가 하위범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윌콕슨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아의 '거부/위협' 진술과 상대영아의 '항의/위협' 진술 ($Z=-3.296, p<.01$)의 비율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에서 영아는

상대영아의 접근을 거부하고 위협하는 진술을 유의하게 많이 보인 반면, 상대영아는 영아의 거부에 항의하는 진술을 유의하게 적게 사용하였다.

IV. 결론 및 논의

장난감을 둘러싼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2세아는 또래와의 대물 갈등 상황에 처할 경우 비언어적 수단과 언어적 수단을 병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며, 대부분의 2세아가 성인의 개입 없이도 행동이나 진술을 통해 또래와 의사소통하면서 나름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또래간의 대물 다툼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2세아의 사회적 능력을 반영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세아가 언어적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언어적 전략만을 사용하여 또래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래와 의사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이 상당히 일찍부터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해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에 있어 공격성은 드물게 나타나고 성인 없이도 또래와 타협하고 협상한다(Killen, 1995)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또한 어린 아동의 행동 수준은 반영적 이해 수준을 초월하는 경향을 보인다(Dunn & Slomkowski, 1992)는 점을 고려할 때, 비언어적 전략만으로도 또래 갈등을 해결하는 2세아의 모습을 통해 언어적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자칫 매몰되어 버릴 수도 있는 2세아의 사회적 능력을 규명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2세아는 또래 갈등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갈등에 대처하는 언어적 전략보다 행동이나 몸짓으로 나타나는 비언어적 전략을 빈번히 사용한다. 이는, 2세아의 언어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에 숙달되지 않은 2세아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특히 장난감이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둘러싸고 또래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고 아직은 자기 절제력이 부족한 2세아가 자신의 욕구를 구체적인 진술로 또래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행동을 앞세웠을 수 있다. 이외에도 2명의 또래만 따로 관찰실로 데려와 관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관찰상황에 위축된 2세아가 말을 적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에서 언어적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걸음마기 이전의 영아와 걸음마기 이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관찰을 병행하여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2세아가 또래 갈등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과 진술은 2세아의 자기중심적 발달 특성을 반영한다. 또래 갈등 과정에서 2세아가 사용한 전략의 하위범주별 사용 분포와 관찰실례를 살펴보면, 영아기의 자기중심적 특성이 잘 나타난다. 장난감을 놓고 또래와 다투는 과정에서 영아와 상대방영아가 모두 '명령/주장'의 언어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습은 2세아가 장난감에 대한 자신의 욕구에만 몰두함을 보여준다. 즉, 2세아는 또래와의 대물 다툼 상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또래의 욕구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주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2세아의 자기중심적 특성은 또래 갈등의 종결 양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부분의 또래 갈등 과정이 어느 한 쪽이 장난감을 독점하는 양상으로 종결된 반면, 또래와 장난감을 공유하거나 나누는 타협의 유형으로 갈등이 종결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넷째, 2세아는 또래와의 대물 갈등 상황에서

장난감에 대한 선점권을 인식한다. 장난감을 둘러싼 또래 갈등 상황에서 2세아가 사용한 전략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미 장난감에 대한 소유권 내지 선점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장난감을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영아에 비해 장난감을 빼앗는 입장에 있는 상대영아의 전략 사용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영아와 상대영아가 사용한 비언어적 전략 중 소극적 전략과 적극적 전략의 사용 정도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즉, 영아가 상대영아에 비해 적극적인 방어 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보인 반면, 상대영아는 영아에 비해 소극적인 탈취 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장난감의 선점권에 대한 영아와 상대영아의 인식 차이는 이들이 사용한 언어적 전략의 비교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관찰 결과, 또래 갈등 과정에서 2세아가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적 전략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주장하는 진술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가 장난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진술을 많이 보인 반면, 상대영아 중 갈등원이 되는 장난감을 놓고 “내 꺼야”라고 주장한 2세아는 소수에 불과했다. 장난감에 대한 선점권의 인식 차이는 영아가 사용한 ‘거부/위협’ 진술과 상대영아가 사용한 ‘항의/위협’ 진술의 비율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영아가 장난감을 빼으려고 접근하는 상대영아에게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것에 반해, 상대영아는 장난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아에게 항의하는 진술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2세아는 또래 갈등 과정 중에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내포하는 유화적 전략을 사용한 반면,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비록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이 상당 부분 일방적이고 덜 세련된 상호작용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2세아가 사용한 전략

중에는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반영하는 세련된 전략도 상당수 나타났다. 특히 2세아가 사용한 유화적 전략은 주로 또래간에 놀이를 유도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놀려고 하는 영아는 상대영아에게 잠시 장난감을 만져보도록 허용함으로써 또래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영아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상대영아는 일종의 놀이를 만들어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또래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즐겁고 조화로운 만남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친사회적으로 다가가는 2세아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또래 갈등의 경험이 2세아의 친사회적 기술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장난감을 놓고 자주 발생하는 영아기의 또래 갈등 상황은 이들이 또래와의 협상을 통해 강제적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볼 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또래 관계를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하는 2세아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또래 갈등의 양상을 단계별로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또래 갈등 과정의 구체적 실재를 세밀히 규명할 수 있었다. 특히 또래 갈등과 관련된 절음마기 영아의 발달 특성-자기중심성, 비언어적 전략과 언어적 전략의 병용, 선점권 인식, 친사회적 전략의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진입 단계부터 전략 사용 단계를 거쳐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2명의 2세아가 보이는 행동과 진술의 다양한 사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한된 공간에 2명의 또래만 데려다놓고 또래 갈등 과정을 관찰한 이 연구의 접근 방법이 나름대로

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관찰을 통해 대물 다툼 상황에서의 또래간 상호작용의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지는데, 특히 조작적으로 정의된 관찰범주를 이용하여 아동이 자연적 또는 실험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개별 아동 및 상황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Brown, Odom, & Holcombe, 1996)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2세아가 또래 갈등 과정에서 보이는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진술을 구분하여 관찰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아직 언어적 능력이 부족한 2세아의 갈등 대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다.

셋째, 영아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관찰 사례는 교사가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2세아의 대물 다툼 상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교사는 2세아에게 있어서 대물 다툼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장난감을 놓고 발생하는 2세아의 다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2세아가 나름대로 또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만 없다면 처음부터 또래 갈등에 개입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사의 개입 없이 아동 스스로 또래 갈등을 해결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후에도 같이 더불어 놀이를 지속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Malloy & McMurray, 1996)는 사실은 또래 갈등 상황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해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도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래 갈등 과정이 또

래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종결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2명의 2세아가 일종의 연합 놀이를 만들어 냄으로써 갈등을 해결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트럭을 놓고도 영아가 단독 놀이를 고집하고 상대영아는 이에 반대하여 결국 관찰자가 갈등 과정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2명이 마주 앉아 트럭을 서로 상대방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타협의 양상으로 갈등을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만약 교사가 놀이 지도를 통해 또래간 대물 갈등 상황에 개입한다면, 일종의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대물 갈등이 원만히 타협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또래 갈등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양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아동이 둘이서만 따로 놀 때 발생하는 갈등은 2명의 아동이 큰 집단 속에서 놀 때 발생하는 갈등과는 다르다(Wheeler, 1994).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실험실 관찰의 제한점을 유념해서 접근해야 하며, 자연 관찰법을 통한 자료의 보완과 비교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모두 10곳의 어린이집에서 관찰대상을 선정한 결과, 관찰실의 물리적 환경을 완벽히 통일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관찰실의 크기라든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 및 관찰실의 환경 구성이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소수의 관찰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을 살펴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이숙재. (1997). 우리 나라 놀잇감의 실태 및 어린이와 어머니의 인식 조사. *아동학회지*, 18(2), 87-103.
- 이순형·김정연. (1997). 보육시설내 성별에 따른 영아와 교사 및 또래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18(1), 23-38.
- 이영석. (1995). 한국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 확인 연구: 0세에서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 1-69.
- 장영희. (1987).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Brown, W. H., Odom, S. L., & Holcombe, A. (1996). Observational assessment of young children's social behavior with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1), 19-40.
- Caplan, M., Vespo, J., Pederson, J., & Hay, D. F. (1991). Conflict and its resolution in small groups of one- and two-year-olds. *Child Development*, 62, 1513-1524.
- Chung, T., & Asher, S. R.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2(1), 125-147.
- Dunn, J., & Slomkowski, C.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70-92.
- Eckerman, C. O., Davis, C. C., & Didow, S. M. (1989). Toddlers' emerging ways of achieving social coordinations with a peer. *Child Development*, 60, 440-453.
- _____ & Didow, S. M. (1996). Nonverbal imitation and toddlers' mastery of verbal means of achieving coordinated 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1), 141-152.
- _____, Whatley, J. L., & Katz, S. L. (1975). Growth of social play with peers during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2-49.
- Eisenberg, A. R.,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 Eron, L. D., Huesmann, L. R., Brice, P., Fischer, P., & Mermelstein, R. (1983). Age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sex typing, and related television habit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71-77.
- Hartup, W. W. (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 336-341.
- _____, Laursen, B., Stewart, M. I., & Eastenson, A. (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590-1600.
- Hay, D. F., Nash, A., & Pederson, J. (1983). Interaction between six-month-ol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05-113.
- _____ & Ross, H. S. (1982). The social nature of ear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53, 105-113.
- Holmberg, M. C. (1980).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rchange patterns from 12 to 42 months. *Child Development*, 51, 448-456.
- Killen, M. (1995). Preface to the special issue: Conflict resolution in early social developmen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4), 297-302.
- _____ & Turiel, E. (1991). Conflict resolution in preschool social interactions.

-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3), 240-255.
- Laursen, B., & Hartup, W. W. (1989). The dynamics of preschool children's conflicts. *Merrill-Palmer Quarterly*, 35(3), 281-297.
- _____ & Koplas, A. L. (1996). Towards understanding peer conflict. *Merrill-Palmer Quarterly*, 42(1), 76-102.
- Malloy, H. L., & McMurray, P. (1996). Conflict strategies and resolution: Peer conflict in an integrated early childhood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2), 185-206.
- Ross, H. S., & Conant, C. L. (1992). The social structure of early conflict: Interaction, relationship, and alliances.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3-185.
- Shantz, C. U. (1987). Conflicts betwe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283-305.
- Wheeler, E. J. (1994). Peer conflicts in the classroom: Drawing implications from research. *Childhood Education*, 70(5), 296-299.